

allele가 conality 분석이 가능한 heterogenous pattern을 보여 높은 검사의 유용도를 알 수 있었다. 이들 19명의 환자에서 clonality를 분석한 결과 19명 환자의 24개의 결절 중 8개의 papillary carcinoma와 2개의 follicular adenoma는 모두 monoclonality를 보였으며, 13개의 adenomatous heperplasia중 10개는 polyclonality를, 3개는 monoclonality를 나타냈다. 특히 2예의 adenomatous heperolasia에서 polyclonality와 monoclonality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 heteroclonality 개념 및 clonality의 변성(transformation)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. 나머지 하나는 solitary fibrous tumor로써 polyclonality를 보여 비후성결절임을 알 수 있었다.

**결론:** 갑상선 결절의 Clonality 분석은 신형성결절(neoplastic nodule)과 비후성결절(hyperplastic nodule)의 감별 및 solitary fibrous tumor와 같은 희귀 결절의 기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.

## 20

###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환자에서의 염기성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의 고찰

원자력병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  
박범정 · 심윤상 · 오경균 · 이용식 · 김승태

염기성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(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)는 다양한 종류의 정상과 종양조직에서 강력한 내피세포 유사분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종류의 악성종양에서 예후적 연관성에 대해 연구되어지고 있다.

저자들은 1996년 3월에서 6월까지 본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에서 두경부영역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으로 치료받은 환자중 술전 혈청 염기성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가 조사된 총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32명의 정상대조군과 8명의 양성종양군, 그리고 14명의 비편평세포암종군과의 비교분석을 하였다.

편평세포암종환자군 26명 중에 14례(53.8%)에서 양성 결과를 보였고 양성종양군에서는 25%(2/8), 비편평세포암종군에서는 71.4%(10/14)에서 양성으로 나타

났다. 반면에 정상군에서는 한례도 양성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상대조군과 편평세포암종군과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다( $p = 0.0006$ ). 한편 병기별로 살펴보면 T 병기나 N 병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T 병기중 조기병변( $T_1$  &  $T_2$ )과 진행된 병변( $T_3$  &  $T_4$ )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다( $p = 0.2470$ ).

## 21

### 유두상 갑상선암의 종양맥관형성도에 대한 분석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 
정응운 · 서진학 · 박정수

갑상선의 악성종양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유두상암은 대부분이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일한 병기 및 분화도에도 불구하고 수술후 국소재발 및 원격 전이가 되는 경우가 저위험군에서도 상당수 관찰할 수 있다. 이러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. 최근 여러 종양맥관형성(tumor angiogenesis) 정도가 종양의 성장 및 전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갑상선암에서의 종양맥관형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.

**목적:** 저자들은 유두상갑상선암의 맥관형성도를 측정하여 각 병기 및 환자의 예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인자로 유용한가를 알아보고자 본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재료 및 방법:** 1986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유두상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75예중 병기 및 예후인자를 고려하여 선택된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남녀비는 1:4로 각각 24명, 96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8.2세(14~80세)이었다. 평균 추적기간은 76개월(14~126개월)이었으며, 추적기간동안 국소재발 및 사망은 각각 23예(19.4%), 7예(5.1%)이었다. 원발병소의 종양조직 및 인접정상조직이 포함된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factor VIII 관련항원과 항원 CD34에 대한 단클론 항체